

정광학원 교사 채용비리 사실로

시교육청 감사 등수 바꾸기 등 확인 전체 사립학교 감사 요구 파문 확산

정광학원 이사장의 교원 채용비리 의혹 제기(본보 2월 24일자 6면 보도)와 관련 정광중·고의 교사 공채 과정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광주시교육청이 일부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광학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촉구하고, 광주 전체 사립학교의 채용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팀 관계자는 2일 "정광학원의 2009년도 교사 공채 과정에서 일부 합격자의 순위가 바뀌

는 등 잘못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외에도 이번 인사에 관여한 학교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여러 곳에서 부실한 채용 행위의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광주시 교육위원회 제174회 임시회에서도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봉근 위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실력보다는 재단이나 교육 관료의 친인척이라는 배경이 작용하고, 수천만 원의 급금이 건네진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정광학원은 물론 광주 전체 사립학교의 최근 3년간 교원 채용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은 특히 "정광학원의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날 경우 검찰 등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면서 "인사 관련자의 계좌주적 등을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위국 위원은 "일부 사립학교의 회계부정과 인사비리 의혹으로 광주 교육계 전체의 신뢰가 추락했다"면서 "이는 광주시교육청이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가 된 한 요인인 만큼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정광중·고 분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교원 채용 비리 의혹 감사로 인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현재 시 교육청 감사가 올해 채용된 교원에 한해서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전 채용 교사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06분
해질 18시 29분

달돋이 10시 06분
달질 00시 03분

눈 내리는 교정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다.

광주	흐리고 비/눈	2/10°C
목포	흐리고 비/눈	2/7°C
여수	흐리고 비	4/9°C
완도	흐리고 비/눈	2/8°C
구례	흐리고 비/눈	2/9°C
해남	흐리고 비/눈	2/8°C
장흥	흐리고 비/눈	2/9°C
고흥	흐리고 비	3/11°C
순천	흐리고 비	4/10°C
영광	흐리고 비/눈	2/7°C
진도	흐리고 비/눈	1/8°C
전주	흐리고 비/눈	1/7°C
남원	흐리고 비/눈	2/9°C
옥산도	흐리고 비	3/6°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북	0.5~1.0m	목포 06:14	11:20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북서	0.5~1.5m	여수 00:45	06:4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북서	0.5~1.5m	여수 12:30	18:52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날씨						
최저/최고	1/13	4/10	2/8	-1/11	0/11	1/12

돼지저금통 선물·신입생 업어주기 ... 특별한 입학식



2일 열린 광주 충장중학교 입학식에서 김용오 교장은 신입생 162명에게 희망이 가득 담긴 돼지 저금통을 선물했다. <사진 왼쪽> 김 교장은 "신입생들이 절망 정신을 빼앗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금통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화순제일초등학교(교장 최종렬) 6학년 학생들은 이날 입학식에서 1학년 새내기들을 등에 업고 선 후배간 따뜻한 정을 나눴다.<사진 오른쪽>. 광주숭일고는 이날 장미와 춤, 노래가 어우러진 축제의 입학식을 마련하고, 교사들은 신입생 400여

명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광주·전남에선 초등학교 580여곳, 중학교 290여곳, 고등학교 160여곳이 일제히 입학식을 열고 새가쪽을 맞이했다. /박진표기자 lucky@·사진=나영주·위정기기자 mjna@

2월 황사 망간·철 정상시의 3~4배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황사의 대기 중 중금속을 관찰한 결과 망간과 철 함유량이 평상시보다 3~4배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광주시의 황사주의보 발효시각 동안 대기오염 측정망 9개 지점에서 관측된 미세먼지 농도는 264~622 $\mu\text{g}/\text{m}^3$ 로 나타났다. 광산구 오선동 측정소에서는 20일 오후 6시 622 $\mu\text{g}/\text{m}^3$ 를 기록, 가장 높았다.

황사 발생 때 대기 중 중금속을 분석한 결과 납(Pb) 0.0322 $\mu\text{g}/\text{m}^3$, 카드뮴(Cd) 0.0008 $\mu\text{g}/\text{m}^3$, 망간(Mn) 0.1522 $\mu\text{g}/\text{m}^3$, 철(Fe) 3.5698 $\mu\text{g}/\text{m}^3$ 등으로 조사됐다. 인위적 오염원인 납과 카드뮴은 평상시 함유량 보다 감소했지만 토양에 많이 함유된 망간과 철은 평상시 함유량 0.0444 $\mu\text{g}/\text{m}^3$, 0.9250 $\mu\text{g}/\text{m}^3$ 의 각각 3~4배로 증가했다. 망간의 경우 피부염과 머리카락 착색, 신경장애 등을, 철은 눈·호흡기관 자극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군·경 형무소 민간인 학살 첫 확인

진실위, 여순사건 수감자 등 3천400여 명

여순사건과 제주 4·3사건 등으로 전국 형무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와 민간인 3천400여명이 군경 등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추진위원회가 2일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형무소에 갇힌 재소자와 민간인 3천400여 명이 군인과 경찰, 교도관 등에 의해 희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진실을 규명한 곳은 부산과 마산, 진주 형무소 등 3곳이며, 국가가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을 조사해 실재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은 여순사건과 제주 4·3 사건 등으로 전국 형무소 20여곳에 수감 중이던 최소 2만명의 재소자와, 예비검속으로 구금

된 국민보도연맹원들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집단 학살돼 암매장되거나 수장된 사건이다.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인민군 비점령지역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미 신병이 확보돼 격리 중이던 재소자와 민간인 수천명을 군경이 일방적이고 임의로 집단 학살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비인도적 행

위였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산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26일부터 9월25일까지 3차례에 걸쳐 1천500여명이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됐으며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48명이다. 희생자들은 전쟁이 나자 부산 사하구 동매산과 해운대구 장산골짜기 등지에서 집단 사살됐으며, 일부는 오탁도 인근 해상에서 산 채로 물에 빠뜨려져 희생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위는 "유족에 대한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민간인 희생 내용의 공식간행물 반영, 인권교육 강화 등을 국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연합뉴스

광주 학교주변 거리 음식 당·나트륨 함유량 높다

광주지역 학교주변 길거리 음식에 함유된 당과 나트륨이 전국 평균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자체 합동 조사 결과 광주지역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주변 2개 지역에서 수거한 호떡과 와플(100g 기준) 등에서 당 성분이 14.9~21.6g 검출됐다. 핫도그와 국물을 포함한 어묵에서도 나트륨이 410~670mg이 검출됐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치인 당 6g, 나트륨 342mg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정후식기자 who@

국민 절반 이상 "죽음 두렵지 않아"

갤럽조사, 장례 화장 선호

국민의 절반 이상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색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1일 전국 성인남녀 814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7%가 '죽음이 별로 두렵지 않다'(42%)거나 '전혀 두렵지 않다'(17.8%)라고 답했다.

반면 '두렵다'라는 응답은 36.6%로 이중 '매우 두렵다'는 7.5%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선호하는 장례방식에 대해 화장(71.4%)이 매장(24%)을 크게 상회했으며 이는 2001년 같은 조사 때보다 9.2%포인트 높아졌고 1994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무려 38.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장례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줬다. /연합뉴스

무안 - 장사(장가계) 무안 공항 직항!!!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국민 최대의 만족도를 주는 광주 MBC 문화방송”
“기존의 택시와 시골의 차원이 다릅니다”

무안 - 장사(장가계) 직항!

749-1111

광주 MBC 문화방송

062-226-6070